

국내

광주일보 선정 2008년 국내·국제 10대 뉴스

국제



금융·실물경제 끝없는 추락

지난 9월14일 미국 4위의 투자은행(IB)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 보호 신청을 한 것이 대공황과 맞먹는 금융위기의 시발이었다. 이후 미국발 금융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직격탄을 날렸다. 주가는 반토막이 났으며 부동산 거래는 끊겼고 자산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었고 실물경제 침체도 가속화되는 등 위기는 진행형이다.

금강산 피격과 남북관계 경색

지난 7월11일 새벽 5시께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50대 주부가 군 통제지역에 들어갔다가 북한군 초병의 총격에 사망했다. 이 사건의 발생과 대응 과정은 경색일로를 달리 올해 남북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 남북은 대북 전단 살포, 6·15 공동선언 이행 문제 등을 놓고 갈등했고 북측은 급기야 개성관광 중단 등 '1·2·1' 조치를 단행했다.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촛불집회 지난 4월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다. 사실상 미국산 쇠고기를 연령이나 부위 제한 없이 받아들이고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는 조건이었다. 시민단체와 애당은 '출숙 협상'이라고 반발했고 쇠고기 협상에 대한 불만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최진실 등 연예인 잇단 자살

인기 개그우먼 정선희의 남편이자 배우인 안재환이 9월 8일 자살 보도면에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40여년에 달하는 사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전해지면서 사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일었다. 얼마 지나지 않은 10월 2일, 20년간 연예계 최정상을 지었던 '국민 여배우' 최진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과 여대야소

이명박 대통령이 2월 25일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임기 5년의 제17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이후 대선 4개월 만인 4월 9일 실시된 제18대 총선에서는 여당인 한나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면서 의회 권력은 4년 만에 단체 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은 이같은 선전에 힘입어 금메달 13개, 은 10개, 동 8개로 올림픽 사상 최고 성과를 올렸다.

박태환 올림픽 수영서 첫 금

'마린보이' 박태환 이 베이징올림픽 남자 수영 자유형 400m에서 3분41초86로 한국 수영 선수로는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땄다. 장미란이 역도에서 세계신기록 5개를 세우며 우승했고 야구대표팀은 16년 만에 단체 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안겼다. 한국은 이같은 선전에 힘입어 금메달 13개, 은 10개, 동 8개로 올림픽 사상 최고 성과를 올렸다.



국보1호 승례문 방화로 소실

600년 동안 서울을 지켜온 '국보 1호' 승례문이 지난 2월 10일 사회에 불만을 품은 한 70대 노인의 '불지마시 방화'로 완전 소실됐다. 평소 문화재 관리를 소홀히 해 온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고 조상의 유적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다는 자괴감 속에 타버린 승례문을 직접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기도 했다.

삼성특검, 이건희 회장 퇴진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및 정·관계로비 의혹 폭로로 2008년 1월초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고 결국 이 전 회장은 국민에게 사과한 뒤 삼성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특검은 99일간 광범위한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거쳐 이 전 회장을 경영권 불법승계와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 김정일 건강 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8월 중순께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의 외형은 그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9·9) 기념 열병식에 불참함으로써 본격 제기 됐으며 국가정보원은 그가 뇌혈관에 이상으로 쓰러졌다며 회복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북한 김정일 건강 이상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올해 8월 중순께 뇌혈관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알려져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졌다. 김 위원장의 외형은 그가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9·9) 기념 열병식에 불참함으로써 본격 제기 됐으며 국가정보원은 그가 뇌혈관에 이상으로 쓰러졌다며 회복되고 있다고 확인했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우주에

지난 4월 8일 오후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광주 출신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30) 씨를 태운 러시아 소유 우주선이 우주를 향해 치솟았다. 이 씨는 8일간 18가지 우주과학실험과 지상교신 등 임무를 마치고 19일 카자흐스탄 북부 오르스크 초원지대로 귀환했다. 이씨는 세계 475번째 우주인이자 49번째 여성우주인으로 기록됐다.

한국